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 1. 8(금)	
		작 성 문 의	경제실 과학기술미래정책과장 김영문(Tel. 044-200-2248) 사무관 이상미(Tel. 044-200-2213)
엠보고	1.8(금) 13시(행사종료) 이후 사용		

벤처기업 3만개 돌파, 제2벤처붐으로 경제 활력 높인다

- 황교안 총리, 총리공관에서 ICT융합 벤처 기업인 12명과 오찬간담회
- 벤처기업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꾸준한 연구개발로 성장 모멘텀 역할 당부
- 황 총리, 음원 사용료 기준이 없다는 애로 건의에 대해 '광고기반 음악서비스 사용료 산정 기준'을 조속히 마련토록 지시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ICT융합 분야* 벤처 기업인을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정책 제안과 아이디어를 듣기 위한 **오찬 간담회**를 가졌다.

* 바이오, SW, IoT, 콘텐츠, 가상현실, 금융, 빅데이터 분야 벤처 기업인 12명

○ 새해 첫 주에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, 기업인들이 “**벤처 기업수가 3만개를 돌파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이 도래했다**”고 평가하자,

○ 황 총리는 “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벤처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꾸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, 고용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 왔다”고 격려했다.

* 매출 천억원 이상 벤처기업 : ('11) 381개사 → ('14) 460개사

* 신규 벤처투자액 : ('10) 1.1조원 → ('14) 1.6조원

□ 자유로운 의견교환 형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**황 총리와 벤처기업 대표들은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중점 논의**하였다.

○ 황 총리는 “그동안 정부는 벤처창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, 대학·연구소의 기술 창업 촉진, M&A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,

○ 앞으로도 정부는 벤처 생태계가 정착되어 선순환을 이루고 **우리 벤처들이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**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밝혔다.

○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정부의 노고를 언급하며 지속적인 **규제 완화***, **세계지원** 등을 요청했다.

* 원격의료, SW 분리발주 확대, 정부 3.0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, 핀테크 활성화 관련 법제 정비 등

- 특히 **클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** 1.25(월) 시행 예정인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이 **민간의 벤처투자 확대의 마중물 역할**을 할 것으로 크게 반기면서도 **광고제한*** 등 선의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하였다.

* 현행은 중개업자 홈페이지에만 투자 광고가 가능한 바 타 매체 광고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

○ 또한 현재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**음원 사용료 기준이 없어 애로가 많다**는 벤처업체 대표의 건의에 대하여,

- 황 총리는 “저작권 보호와 동시에 신규비즈니스 창출을 위하여 **문화부에서 음원 사용료 산정 기준***과 관련하여 현재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어 조만간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”고 하였다.

* 「저작권법」 제105조에 의거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예정(1월말)

□ 황 총리는 핀테크, 빅데이터 등 ICT융합 벤처 **활성화**를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**규제혁신**이 필요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*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, 오늘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**정책에 적극 반영**하라고 지시하였다.

* 핀테크 업종을 투자금지대상에서 제외(중소기업창업지원법),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규제완화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) 등

○ 아울러 “벤처 기업이 **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**이 되고, 고조된 창업열기가 **지속가능한 벤처 붐**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가자”고 당부하였다.

□ 한편, **황 총리**는 취임 초인 6.30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스마트 농업벤처 육성을 밝힌 이래, 7.13일 충북 오송 수출벤처업체인 파이온텍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으며, 9.2일 서울 역삼동 **디 캠프**에서는 **벤처기업 간담회**를 개최하여 “**벤처기업이 우리경제의 활력**”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.

○ **황 총리**는 또 11.12일 충남 부여의 스마트팜을 방문해 농업벤처의 가능성을 점검했으며, 11.27일 마포구 문화창조융합센터 및 12.23일 판교창조경제밸리 기공식 현장을 찾아 신산업 창출을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**벤처 기업육성을 통한 경제 살리기 행보**를 이어오고 있다.

참고 1 참석자 명단

	성명	기업명	기업현황 / 약력
바 이 오	 나학록 (남)	씨유 메디칼 시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업종) 자동심장 충격기, 제세동기, 플라즈마 멸균기 시력보정렌즈 등 치료기기 · (특징) 심장충격기 전문제조, 세계 70여개국 수출, 국내/아시아 최초 심장충격기 개발 · 現, (주)씨유메디칼시스템 대표 · 前, (주)원택 시험연구소 ('98) · 前, 한국통신기산업 ('96)
	 남학현 (남)	아이센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업종) 혈당측정기, 혈당측정검사지 등 의료기기 · (특징) 광운대 학내 벤처로 시작, 국내 혈당측정기 시장 점유율 20%, 세계80여개국 수출 · 現, (주)아이센스 사장 · 現, 광운대 화학과 교수
S W	 박미경 (여)	포시에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업종) 기업용 리포팅 SW 및 전자문서 솔루션 · (특징) 리포팅과 전자문서 시장 1위, 전자문서를 통해 '페이퍼리스' 환경 조성 · 現, 여성벤처협회 수석부회장 · 現, (주)포시에스 공동대표 · 前, 한국엠제이엘 ('94)
	 김영호 (남)	말랑 스튜디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업종) 캐릭터 기반 스마트폰 알람서비스 · (특징) '12년 앱 출시 후 누적 다운로드 수 2,400만건, 구글 플레이 '대세 앱' 선정('15.5월) · 現, 말랑스튜디오 대표 · 미래부 인증 "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" · SBS 인터넷 라디오 '고릴라' 개발
IoT	 이상산 (남)	헨디 소프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업종) 그룹웨어 등 협업 SW분야 · (특징) 클라우드 기반 협업SW, IoT서비스(스마트 오피스/자전거/보일러 등) · 現, 헨디소프트 대표 · 現,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· 前, KISTI 슈퍼컴퓨팅센터장
	 박수만 (남)	비트패킹 컴퍼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업종)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· (특징) 출시 20개월 만에 600만 회원 돌파, 2년 연속 구글이 뽑은 '올해의 앱' 선정 · 現, 비트패킹컴퍼니 대표 · 前, '미투데이' 센터장, 네이버 '밴드' 개발

	성 명	기업명	기업현황 / 약력
콘텐츠	 김민석 (남)	스마트스터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업종) 영유아 대상 동영상 기반 교육 콘텐츠개발, 뉴미디어(App, IPTV) 통한 배급, 캐릭터기반 상품 · (특징) '15.12월 기준 158개국 9천만명 회원 보유, 국내 금융권 100억원 투자 유치 · 현, 스마트스터디 대표 · 전, 넥슨, NHN 근무
가상현실	 하진우 (남)	에이치유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업종) 실내공간정보 기반의 가상현실 · (특징) 자동으로 2D도면을 가상현실 콘텐츠로 변환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VR 플랫폼 제공 · 현, (주)에이치유디 대표 · 전, 건축가
클라우드펀딩	 고용기 (남)	오픈트레이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업종)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 · (특징) 투자형 클라우드펀딩 · 현, 한국클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장 · 현, 오픈트레이드(주) 대표 · 전, 한국금융플랫폼 상무('12)
핀테크	 박소영 (여)	페이게이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업종) 핀테크 · (특징) 전자지불서비스업체, 해외카드 결제대행 · 현, 핀테크 포럼 회장 · 현, 벤처기업협회 특별부회장 · 현, 페이게이트 대표
빅데이터	 이경일 (남)	솔트룩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업종) 빅데이터 플랫폼, 인공지능 기술 · (특징) 실시간 빅데이터 수집, 분석, 예측 및 기계학습과 딥러닝 플랫폼 · 현, ㈜솔트룩스 대표 · 전, 인하대 정보통신공학부 겸임교수('07) · 전, 시스메타 대표('03)
벤처협회	 김철영 (남)	미래나노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업종) LCD 광학필름 및 터치스크린용 메시필름 · (특징) LCD용 광학필름 세계 1위 기업으로 우수한 코팅 기술력 보유 · 현,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 · 전, 중앙일보 경영기획실('00) · 전, 삼성SDI 종합연구소 선임연구원('95)

참고 2 벤처기업 ('14년 기준) 및 관련 정책 현황

□ 주요 현황

○ 벤처기업 수 : 총 30,527개

< 업종별 현황 >

구 분	제조업	정보처리 S/W	연구개발 서비스	건설 운수	도 소매업	농·어·임 광업	기타	계
업체수	21,558	5,060	324	425	470	52	2,638	30,527
%	70.6	16.6	1.1	1.4	1.5	0.2	8.6	100

< 업력별 현황 >

구 분	6개월 미만	6개월~ 1년미만	1년~ 3년미만	3년~ 5년미만	5년~ 7년미만	7년~ 10년미만	10년~ 20년미만	20년 이상	예비 벤처	합계
업체수	357	813	5,650	5,676	4,175	4,072	8,005	1,708	71	30,527
%	1.2	2.7	18.5	18.6	13.7	13.3	26.2	5.6	0.2	100

○ (매출·수익) 매출액 총합계는 214.6조원으로 GDP의 14.5%, 기업당 매출액은 71.9억원(전년대비 11.2% 증가)으로 매출액 대비 **영업이익률(5.8%), 순이익률(4.1%)**이 우수

* 영업이익률(영업이익/매출액) : (대기업) 4.4%, (중소기업) 3.1%
* 순 이익률(순 이익/매출액) : (대기업) 2.7%, (중소기업) 2.1%

○ (고용) **72만명**, 전체 산업체 근로자수('13년 1천5백만명)의 **4.7%**, 기업당 24명(전년대비 6.2% 증가), 중소기업('13년 3.9명)의 6.2배

○ (기술혁신) **R&D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2.9%**로 대기업(1.4%)의 2.1배, 중소기업(0.8%)의 3.6배 수준

- 연구소 설치 비율은 70.6%(연구소 56.7%, 연구전담부서 13.9%)로 중소기업(10.8%)의 6.5배, 산업재산권 평균 7건 보유

* 특허권(4.2건), 실용신안권(0.7건), 디자인권(1.0건), 상표권(1.1건)

○ (경영 환경) 창업 3년 후 기업 생존율 41.0%*, 경영상의 **애로는 자금 분야(70.0%)**가 가장 높고, 기술사업화(60.8%), **판로 개척(60.2%)**,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(57.7%) 등임

* 한국은 OECD 중 최하위권((호주) 62.8%, (미국) 57.6%, (이스라엘) 55.4%)

□ 주요 대책

- **(스톡옵션)** 비상장 벤처기업의 비적격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행사이익 과세 시 분할납부 허용기간 확대(현행 3년 → 5년)
 - * (현행) 시가 또는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행사가격 설정 → (개선) 시가보다 낮은 공정가격으로 발행 허용
- **(병역 특례)** 고등전문대(Uni-Tech) 졸업생들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허용
 - * (현행) 특성화고 등 졸업생만 배정 → (개선) 일부 학사 수준의 인력 허용
- **(연대보증 면제) 우수기술 창업기업(기술등급 BBB) 연대보증 면제범위 확대**
 - * (현행) 창업후 1년 이내 기업 → (개선) 창업후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 추진('15.9월말 기준 약 4만개 내외)
- **(기술 창업) 의무출자비율 등 연구소기업·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제 완화**
- **(엑셀러레이팅) 엑셀러레이터*에 대한 세제혜택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추진**
 - * 재무투자 중심의 기존의 벤처캐피탈이나 엔젤과 달리 스타트업에 투자 후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하여 성장을 지원
- **(민간 투자 확대) 벤처펀드 규제완화,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 등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**
- **(M&A 활성화) M&A 세제 감면 등을 통하여 기업공개(IPO)중심에서 M&A 등으로 회수 방법의 다양화**
 - * 기술혁신형 M&A 세제지원 기준 완화, 대기업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)이 중소·벤처기업 M&A 시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 확대(3년 → 7년) 등

참고 3 | 클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추진 현황

□ 개요

- '15.7.6(월)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클라우드펀딩법) 개정으로 인터넷으로 사업자금조달이 가능
 - ※ '10년부터 지분투자형, 대출형, 기부형 등 국내에 총 30여개 클라우드펀딩 업체가 활동 중

□ 주요 내용

- 벤처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* 신설
 - * 투자자로부터 인터넷을 통한 소액증권 모집 등

< 투자중개업자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비교 >

	투자중개업자	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
진입규제	인가제	등록제
최저자본금	약 30억	5억
사업계획, 인적·물적설비, 경영건전성, 대주주 등 기타	*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특성(고객재산 관리 ×, 온라인상 단순 중개업 영위 등) 반영 예정	

- 원활한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중개업자의 진입 규제, 증권발행 부담은 완화하되, 투자한도 및 전매제한 등 엄정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
 - ※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,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 제한(1년간 7억원), 투자한도 제한, 투자자간 전매 1년간 제한, 발행인·대주주의 지분매각 1년간 제한, 중개업자의 고객재산 보관·예탁 금지 등

□ 향후 일정

- '16.1월~,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마련('16.1.25 시행 예정)

참고 4 주요 벤처기업 단체 현황 (간담회 참석)

□ 벤처기업협회 ('95년 설립)

- (설립목적) 분야별 벤처기업들의 권익보호, 기업간 상호교류를 통한 벤처산업 활성화 도모
- (회장) 정 준 (주)솔리드 대표 (제11대 회장, '15.2월~)
- (조직) 4실 6팀, 2센터 / 8개 지회, 회원사 13,118개사('15.6월)
 - * 해외지부 : 49개국 80개 지부
 - * 제조(40.2%), SW(21.9%), 정보통신(16.5%), 바이오(12.3%), 인터넷·컨텐츠(9.1%) 등
- (주요기능) 중견벤처 및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, R&D, 우수인재 확보/육성, 판로개척, 기업홍보 등 성장 지원, 사회 전반 기업가정신 고취, 창업 및 글로벌화 지원 등

□ 한국여성벤처협회 ('98년 설립)

- (설립목적) 여성벤처기업 활성화와 건전한 발전 도모, 여성벤처기업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인식 고양 등 성장기반 조성
- (회장) 이 영 (주)테르텐 대표 (제9대 회장, '15.2월~)
- (조직) 1실 3팀 / 4개 지회, 정회원사 921개
- (주요 기능) 여성벤처기업의 발굴 및 창업지원, 여성벤처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활동,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등

□ 핀테크 포럼 ('14년 설립)

- (설립목적) 핀테크 기업과 금융권 간 정보교류, 자문, 협업을 통한 금융시장확대 기반 조성
- (회장) 박소영페이게이트 대표 (초대회장, '14.11월~), / 회원사 360개
- (주요 기능) 핀테크 포럼 개최, 핀테크스쿨 프로그램 운영 등